



# 외국인 매수, 실적 뒷받침돼 오래간다

## 운용·자문사 CIO의 증시 3대 변수

국내 증시가 지난주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로 연중 신고점을 연거푸 경신했다. 증권가의 관심은 과연 이번에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치원 한국투자밸류투자자산운용 부사장, 송성엽 KB자산운용 전무, 이승준 삼성자산운용 상무, 김태홍 그로스투자자산운용 대표 등 4인의 주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상대로 외국인 매수, 펀드 매물, 대형주와 중소형주 등 증시의 3대 쟁점에 대한 투자 전략을 물었다.

### 2가 2050·2100서 펀드환매 부담 여전

### 3 대형주 강세...삼성전자·현대차 유망

CIO들은 최근 외국인 매수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신형시장이며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 및 중국에 대한 우려 완화에서 찾았다. 수출 등 국내 경기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2분기 이후 기업 실적 개선이 보다 뚜렷해질 경우 자금 유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치원 부사장은 "미국 테슬라나 구글 트위터 등 신경제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비중을 기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입 강도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상무는 "5월 연휴 직후 발표된 중국 4월 수출입 지표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기업 이익이 살아나면 국내 증시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 추세적인 순매수로 돌아섰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송성엽 전무는 "현재 외국인 매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외국인 입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 주요 운용·자문사 CIO 4인의 증시 진단과 전망

CIO	한국투자밸류운용 이치원 부사장	KB자산운용 송성엽 전무	삼성자산운용 이승준 상무	그로스투자자산운용 김태홍 대표
외국인 수급	저평가된 신흥시장으로 자금 유입 지속	추세적 매수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중국 유력 완화, 기업실적 개선 시 유입 지속	국내지표 호조에 상반기 2100까지 상승 견인
펀드 환매	2000까지는 매물 소화, 2050, 2100 상승 때마다 매물 나올 것	1950-2000 매물 해소, 2050, 2100 상승 때마다 환매 계속	2000까지는 환매 압력 줄어. 지수 오를수록 환매 강화	2000 전후 환매 해소, 2050에서 다시 매물 나올 것
대형주 vs 중소형주	중소형주 고평가 상테, 대형주 위주 매수	대형주가 시장 주도할 가능성 높아	대형주 강세 속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	대형주 중소형주 동반 상승, 대형주 우세
유망 업종	저PER(삼성전자 현대차), 저PBR(한진 지주사)	저평가된 자동차와 은행	철강 화학 건설 등 저평가 경기민감주	네이버 등 인터넷 게임 레저 관련주

코스피가 2000선을 넘을 때마다 또 쏟아지는 펀드 환매 물량의 해소 여부도 최근 시장의 주요 쟁점이다. 시장 수급을 분석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2000선 전후 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15-16 일 이를 동안 또 다시 3000억이 넘는 투신권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CIO들은 1950-2000 사이 펀드 환매 물량이 거의 소화됐지만 2000-2050, 이어 2050-2100까지 상승하는 마디마다 환매가 지속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일침처럼 견해를 내놨다. 김태홍 대표는 "코스피가 이미 여러 차례 2000선을 넘나들면

서 펀드 환매가 꽤 많이 해소된 건 사실이지만 2050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전무도 "1950-2000 사이 매물은 많이 해소됐지만 2000 이상에서는 환매 매물이 아직 더 남았고, 2050-2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주 부활이나, 중소형주 강세 지속이나 논란에 대해 CIO들은 대체로 5월 이후 부각되고 있는 대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사장은 "주기순자산비율(PBR) 기준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의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 수

준으로 내려온 상태"라며 "고평가된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망 종목으로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저평가된 삼성전자와 현대차, 자산주로서 저평가 매력 높은 한국전력과 지주회사 등을 꼽았다. 이 상무는 "대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속에서 저평가 매력 높은 종목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철강 화학 건설 등 저평가된 경기민감주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처럼 인터넷 및 게임 관련 종목을 수익률이 꾸준히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시가총액 30조 돌파 SK하이닉스 더 갈까

SK하이닉스가 사상 첫 시가총액 30조원을 돌파하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신기록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0.6% 오른 4만2250원으로, 시가총액이 30조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초 대세 상승기가 시작됐을 당시 시가총액이 19조원이었던 SK하이닉스는 8개월여 만에 1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시총 4, 5위인 현대모비스, 포스코와의 격차도 2조-3조원 이상 벌려놨다. 당분간 부동산의 3위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첫 시가총액 30조원을 돌파하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신기록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0.6% 오른 4만2250원으로, 시가총액이 30조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초 대세 상승기가 시작됐을 당시 시가총액이 19조원이었던 SK하이닉스는 8개월여 만에 1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시총 4, 5위인 현대모비스, 포스코와의 격차도 2조-3조원 이상 벌려놨다. 당분간 부동산의 3위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D랩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조우형 KDB증권 애널리스트는 "D랩 가격 변동폭 축소와 지속적인 원가 절감으로 내년까지 SK하이닉스 수익성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실적 기준 SK하이닉스 주가수익비율(PER)은 10.3배, 마이크로는 10.4배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은 SK하이닉스가 8.4배, 마이크로는 8.5배 수준이다. 양사 PER가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저평가'로 볼 여지가 거의 없다. 증권가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평균치도 4만9000원으로 현재 가격에서 그리 멀지 않다. 조시영 기자

# 아웃도어 관련株 '성수기'

## 태양·대륙제관...휴가철 맞아 주가 급등

여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아웃도어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아웃도어 주가 5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 아웃도어 관련 종목 가운데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것은 현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이다. '썬엔료' 브랜드로 국내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은 4월 중순 8400원이던 주가가 최근 1만2000원 안팎까지 올랐다. '맥스부탄'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이 20%대 후반까지 상승한 대륙제관은 주가가 4월 이후 20% 가까이 상승했다. 수출 증가에 더해 캠핑족 증가로 인한 내수 물량 확대 기대감 때문이다.

한샘과 삼성전자로 납품되는 주문자상표부착제조(OEM)와 석유 스토브 수출업체인 과세고는 최근 캠핑용품 내로사업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MB정부 시절 최고 테마주였던 삼천리전자와 자회사 참좋은레져 등 전자계측도 이날 들어 랠리를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자전자 보급률이 2012년 기준 26%로 일본(68%) 독일(87%)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상 추가 설치될 예정인 대중기적으로 자전자 주가가 유망하다고 전망한다. 조시영 기자

# "절대수의 추구는 헤지펀드 시장 커질 것"

## 이언 하스 누버거버먼 수석부사장

"현재 미국 헤지펀드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언 하스 누버거버먼 수석부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럽삼공의회(ESCK)와 공동 주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하스 부사장은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8년 1조4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7000억달러(약 276조원)까지 커졌다"며 "미국에선 헤지펀드가 개인투자자의 분산투자 도구로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헤지펀드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

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헤지펀드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자산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주목받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욕구에 맞춰 헤지펀드 운용사도 변하기 시작했다. 하스 부사장은 "운용사들이 공모 형태로 헤지펀드를 출시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기관 투자자 전용 펀드보다 수수료와 낮고 최저투자비용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500만달러(약 51억원)에서 5000분의 1 수준인 100달러(약 100만원)로 낮아졌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는 '폐쇄형(Closed)'으로 만기까지 환매가 어려운 사모형 펀드가 대다수인 것과 대비된다. 하스 부사장은 공모형 헤지펀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내 기업투자펀드 시장은 10조달러(약 1경원)인데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낮다"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운용사 중 84% 이상이 헤지펀드에 투자할 의사를 밝혀 헤지펀드 투자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헤지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금리 상승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스 부사장은 "지난 14년간 월간 단위로 분석하니 금리 상승기에 헤지펀드 75%가 수익을 냈다"며 "개인투자자가 대체투자 수단으로 헤지펀드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투자 트렌드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태욱 기자·윤필영 인터넷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 신약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매각부동산의 목록(물건번호별 명칭)**

■ 매각부동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86-2 수원종합공동단지 201동 211호 외 72개 호수 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170번지 공채주택 7-170번지

■ 물건정보 : 매각의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hanarust.com)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수별 최저입찰금(물건번호별 최저입찰금)** (단위: 백만원)

물건번호	최저 입찰금						
1	68	62	56	51	46	42	38
2, 11, 12, 24, 25, 26, 36, 37, 38, 39, 40, 41, 44, 45, 46, 47, 48	66	60	54	49	45	41	37
3, 3호 1호 18	202	182	164	148	134	121	109
4, 7, 8, 13, 15, 17, 18, 19, 20, 22, 27, 29, 30, 32, 34, 35	216	195	176	159	144	130	117
9	216	195	176	159	144	130	117
10	82	74	67	61	55	50	45
21	63	57	52	47	43	39	36
28	192	176	159	144	130	117	106
31	200	180	162	146	132	119	108
33	129	117	106	96	87	79	72
41	295	266	240	216	195	176	159
42	131	118	107	97	88	80	72
49	444	400	360	324	292	263	237
50, 54	417	376	339	306	276	249	225
51, 57	304	274	247	223	201	181	163
52, 53	315	284	256	231	208	188	170
55	262	236	213	192	173	156	141
58	254	229	207	187	169	153	138
59	218	197	178	161	145	131	118
59	147	133	120	108	98	89	81
60, 61	151	136	123	111	100	90	81
62	161	145	131	118	107	97	88
63	505	461	417	373	330	297	264
64	2,853	2,558	2,312	2,081	1,873	1,686	1,518

※ 물건번호별 부가서비스는 당사 홈페이지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수별 입찰일시**

차수	입찰일시	시간	차수	입찰일시	시간	차수	입찰일시	시간
제1차	2014.06.09 (화)	09:00	제5차	2014.07.07 (화)	09:00	제9차	2014.08.04 (화)	09:00
제2차	2014.06.09 (화)	14:00	제6차	2014.07.07 (화)	14:00	제10차	2014.08.04 (화)	14:00
제3차	2014.06.23 (화)	09:00	제7차	2014.07.21 (화)	09:00			
제4차	2014.06.23 (화)	14:00	제8차	2014.07.21 (화)	14:00			

**4.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은 당일 18시까지
- 입찰 및 낙찰의 결정사항
  - 입찰의 공표 : 청약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도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개찰 : 당일 오후 2시 입찰서 개봉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자가 가장 입찰서 중 최고가격 입찰서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서 2인 이상이 동점인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서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독이서 재발표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 입찰일시 후 3영업일 이내에 다음 최저 입찰금에 대한 계약 체결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상시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확 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상시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입찰일시 당일 입찰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공금기금(국공채 등)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일시 당일 입찰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공금기금(국공채 등)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계약금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이 없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 산하자산에 귀속됩니다.
- 계약금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낙찰은 계약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각대금 중 부가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부가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유선인자가 발급수령(발급부서)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서비스 성립에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고는 당사 홈페이지(www.hanarust.com)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www.hanarust.com → 공매/입찰/문의 | 연락처 : TEL. 0213287-4730 | 광고지원본부 리스크관리팀

2014년 5월 19일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대우빌딩, 신안빌딩)

**기업의 생존 및 성장전략을 위한 제29기 M&A 전략 전문가 과정**

**교육특징**

- M&A 온라인 교육 과정 1개월 무료 서비스
- 기존 이론 강의에서 습득할 수 없었던 실무와 실제 경험 Know-how 전수
- M&A 사례, M&A 전략 수립, 재무 및 법률 분야 외 외부 전문가를 강사진 구성(변호사, 회계사, 전략 전문가 외)

**교육개요**

주요 내용	시작일/종료일	강사	교육비
기업의 생존 전략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M&A 전략 수립	2014.06.15 - 2014.07.14	김영준(대우증권)	98만원
기업의 생존 전략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M&A 전략 수립	2014.08.15 - 2014.09.14	김영준(대우증권)	98만원

**교육대상**

- M&A 전략 수립, M&A 대상 목표기업의 선정
- M&A 관련 법률사항 검토 (실체 사례 중심)
- 구조조정과 법규관련 M&A
- M&A 협상 실무 : 성공 협상의 원칙 (A사 사례중심)
- M&A 가치평가 분석, 세무회계
- 적대적 M&A 및 자금조달
- 인사 조직 문화 통합전략 (PM) - BA 사례중심
- 국내 외 기업의 M&A 사례, 외국기업 M&A의 주의점 & 사례

**교육비용** 98만원 (교재비, 식사비 등 제반 경비 포함 /VAT포함) 5월26일까지 조기 신청 시 88만원 수강 가능함

**교육장소** 매경교육센터 (충무로역 7번 출구,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비** 98만원 (교재비, 식사비 등 제반 경비 포함 /VAT포함) 5월26일까지 조기 신청 시 88만원 수강 가능함

**교육대상**

- M&A 또는 구조조정 관련 실무의 임직원
- 공기업의 전략/기획 등 부서장급 임직원
- M&A 업무관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담당자** 박준현 연구원 [Tel] 02-2000-5440 http://edu.mk.co.kr

※ 선착순 30명으로 조기 마감 되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매경교육센터 Tel. 02-2000-5440 Fax. 02-2000-5425 http://edu.mk.co.kr

**매일경제**

**기업의 생존 및 성장전략을 위한 제29기 M&A 전략 전문가 과정**

**교육특징**

- M&A 온라인 교육 과정 1개월 무료 서비스
- 기존 이론 강의에서 습득할 수 없었던 실무와 실제 경험 Know-how 전수
- M&A 사례, M&A 전략 수립, 재무 및 법률 분야 외 외부 전문가를 강사진 구성(변호사, 회계사, 전략 전문가 외)

**교육개요**

주요 내용	시작일/종료일	강사	교육비
기업의 생존 전략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M&A 전략 수립	2014.06.15 - 2014.07.14	김영준(대우증권)	98만원
기업의 생존 전략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M&A 전략 수립	2014.08.15 - 2014.09.14	김영준(대우증권)	98만원

**교육대상**

- M&A 전략 수립, M&A 대상 목표기업의 선정
- M&A 관련 법률사항 검토 (실체 사례 중심)
- 구조조정과 법규관련 M&A
- M&A 협상 실무 : 성공 협상의 원칙 (A사 사례중심)
- M&A 가치평가 분석, 세무회계
- 적대적 M&A 및 자금조달
- 인사 조직 문화 통합전략 (PM) - BA 사례중심
- 국내 외 기업의 M&A 사례, 외국기업 M&A의 주의점 & 사례

**교육비용** 98만원 (교재비, 식사비 등 제반 경비 포함 /VAT포함) 5월26일까지 조기 신청 시 88만원 수강 가능함

**교육장소** 매경교육센터 (충무로역 7번 출구,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비** 98만원 (교재비, 식사비 등 제반 경비 포함 /VAT포함) 5월26일까지 조기 신청 시 88만원 수강 가능함

**교육대상**

- M&A 또는 구조조정 관련 실무의 임직원
- 공기업의 전략/기획 등 부서장급 임직원
- M&A 업무관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담당자** 박준현 연구원 [Tel] 02-2000-5440 http://edu.mk.co.kr

※ 선착순 30명으로 조기 마감 되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매경교육센터 Tel. 02-2000-5440 Fax. 02-2000-5425 http://edu.mk.co.kr